

2003년도 시가문학 분야 연구 동향

정 인 숙 (전남대)

1. 머리말
2. 분야별 연구 개관
 - 2.1. 고대가요, 향가 연구
 - 2.2. 고려가요, 악장 연구
 - 2.3. 시조 연구
 - 2.4. 가사 연구
 - 2.5. 잡가, 시가교육, 기타 일반론
3. 맺음말

1. 머리말

이 글은 2003년 한 해 동안 고전시가를 대상으로 연구된 논의의 성과를 개괄하고 전반적인 연구동향을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 해를 기준으로 해서 연구동향을 살피는 일은 단순히 자료를 한 눈에 참조하도록 목록을 정리하여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재 연구의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향후 연구의 방향까지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한 해에 쏟아져 나오는 엄청난 양의 연구 성과들을 일일이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바탕으로 전체를 조망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연구 관점이나 연구 방법 면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인 연구를 중심으로 논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

지난해는 단순한 자료의 편수만으로 본다면 예년과 마찬가지로 시조, 가사에 대한 논의가 단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향가와 고려시가에 대

한 의욕적인 연구 성과가 돋보인 한 해였다. 아울러 19~20세기에 대한 관심의 고조로 잡가에 대한 연구도 비교적 활발했다. 또한 자료의 발굴과 해석이라는 1차적 연구에서부터 장르 혹은 작품의 시학과 미의식을 규명한 논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연구 성과를 시가의 각 분야별로 상세히 고찰하기로 한다. 이는 주로 고전시가 혹은 고전문학 관련 주요 학술지의 논문과 단행본, 각 대학의 학위 논문들을 중심으로 논의될 것이다. 분야별 구체적인 연구 성과를 개관하는 방식은 그동안 행해진 서술 기준을 참고하기로 한다.

2. 분야별 연구 개관

우선 고대가요와 향가를 묶어 고찰한 다음 고려가요와 악장을 살피고자 한다. 이어 시조와 가사를 각각 나누어 고찰한 후 마지막으로 잡가, 시가교육, 기타 일반론을 함께 묶어 검토하는 순서로 연구 성과를 개관하고자 한다.

2.1. 고대가요, 향가 연구

고대가요의 연구는 몇 편의 논문이 제출된 데 불과하나 다양한 방면으로의 접근을 시도한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특히 작품 생성의 역사적 문맥에 대한 천착은 최근의 시가 연구 흐름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작품을 보다 정확히 해석하기 위한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본다.

먼저 <구지가>를 역사적 상황과 연관시켜 그 전쟁서사시적 성격을 규명한 차재형의 논의(「<구지가>의 전쟁서사시적 성격 연구」)와 한국 서정시의 첫 번째 작품이라 할 <공무도하가>의 생성 유래를 역사 지리적 배경에서 접근한 성기옥의 논의(「<공무도하가>와 한국 서정시의 전통」)가 주목된다. 특히 후자는 비극적 사건이 설화로 허구화되는 과정에서 극적 효과를 조성하기 위해 <공무도하가>라는 노래가 덧붙여진 것으로 보고 작품의 비극성이 기층민의 상상적 욕망이 만들어낸 집단적 감성의 결정체라

는 견해를 제시하는 동시에 ‘공무도하’ 모티프의 현대적 계승 양상까지도 살피고 있어 흥미롭다. 한편 고대가요를 대상으로 국어학적 측면에서 새로운 어석을 시도한 논의(권재선, 「『가락국기』의 거북노래 어석」)와 <황조가>를 시조와 연관시킨 논의(김영수, 「<황조가>와 이별주제 시조의 양상 고찰」)도 눈여겨 볼만하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고대가요는 그 텍스트가 한정되어 있고 관련 자료도 이미 잘 알려져 있어 기왕의 연구 성과에서 크게 나아가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지난해의 연구는 다양한 시각에 의한 새로운 해석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향가의 연구 경향을 살펴보면 해독이나 형식적 특성 고찰을 비롯하여 작품과 배경기사와의 관련성 여부의 고찰, 작품이 생산된 당대 문화나 의식에 대한 고찰 등이 여전히 주요 관심사로 자리 잡고 있음이 확인된다.

우선 해독과 관련해서는 양희철(「향찰 ‘于萬(隱)’과 ‘于音毛’의 해독」; 「향찰 ‘執番—’과 ‘火條’의 해독」)과 나까지마 히로미(「향가와 『만엽집』의 표기법 비교를 통한 향가 해독 연구」), 박재민(「<보현십원가> 難解句 5題」)의 연구를 들 수 있는데, 특히 박재민의 연구는 구결 자료를 이용하여 향가를 해독하고자 하는 최근의 흐름을 잇고 있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편 북한 국어학의 대가인 류렬의 저서(『향가연구』)가 간행되어 나온 것은 큰 성과가 아닐 수 없다.¹⁾ 이 책은 북한 사회과학원 언어연구소가 기획한 ‘조선어학전서’ 시리즈 총 65권 중의 하나로 저자의 육필원고를 직접 받아 박이정출판사에서 그대로 입력·편집해 간행한 것인데, 북한의 향가 연구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뿐만 아니라 남북 학술교류의 이정표를 세웠다는 점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향가의 형식에 대한 논의는 예년에 비해 다소 줄어든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8행 향가에 주목한 신재홍의 연구(「<모죽지랑가>의 8행 향가의 양식적 특성」)가 돋보인다. 이는 연구자가 앞서 보인 4행 향가에 대한 관심

1) 여기서는 향가 작품을 ‘세 나라 시기의 사뇌가’, ‘발해-후기신라 시기의 사뇌가’, ‘균여전의 사뇌가’의 세 가지로 분류하여 소개하고 있다. 작품명에 있어서 한글위주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점도 특이하다.(그 예로서 <꽃노래>(현화가), <누이노래>(제망매가), <백성노래>(안민가), <잣나무노래>(원가) 등을 들 수 있다.)

(「4행 향가의 문학성」, 『고전문학과 교육』 제3집, 청관고전문학회, 2001.)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진했던 8행 향가의 양식적 특성을 짚어낸 점이 주목된다. 8행 향가는 4행의 두 구가 결합하면서 형성되는 과정에서 4행 향가의 내적 형식을 계승함과 동시에 좀더 복잡한 성격의 서정성을 표현하는 양식으로 정착되어, 10행 향가가 지닌 심미적 완결성과는 달리 갈등이 완전히 풀어질 수 없는 미완의 정서나 주제를 담아내는 양식으로 기능하였다고 본 견해가 무척 흥미롭다.

한편 향가 연구에 있어 텍스트와 배경기사(서사 맥락 혹은 서사물)와의 관련 여부는 늘 문제가 되어 왔는데, 반드시 서사 맥락과의 연관 속에서만이 향가가 올바르게 파악될 수 있다고 본 견해(이도흠, 「향가 텍스트와 서사 맥락의合一 문제」)와 향가를 독립된 문학작품으로 파악하고자 한 견해(이승남, 「〈처용가〉의 시적 정서와 서사물의 구조」)가 함께 제기되어 연구자간의 일정 정도 시각차를 보여 주었다. 그러면서도 전자가 맥락에 따른 해석을 한 뒤에는 자유롭게 텍스트 분석을 해야 할 것을 주장한 점에서는 후자가 가요의 주변 상황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서서 가요 자체에 나타난 그 시적 정서를 탐색할 것을 주장한 점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발견되기도 한다.

이러한 연구 방법 상의 혼선 양상은 김창원의 논의(「『삼국유사』 소재 향가의 역사적 위상에 대한 비판적 고찰」)를 통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그는 『삼국유사』 소재 향가자료가 향가를 둘러싼 역사적 사실을 설화적으로 변용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배경설화가 전하는 이야기를 역사적으로 해석하여 향가의 역사상을 재구성하려는 시도는 방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역설하였다. 이 견해는 그 동안의 연구 방법에 대한 심각한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이에 대한 연구자들간의 의견 교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개별 작품론에 있어서는 월명사의 <도술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었다는 점이 가장 주목할 만하다. 이민홍(「신라 악무에서 향가의 위상과 <도술가>의 악장적 성격」)이 경덕왕의 업적을 칭송하는 악장적 성격을 가진 점에 주목하였다면 김문태(「유리왕대 <도술가>와 경덕왕대 <도술가>의

거리」)는 ‘도술가’가 하나의 노래명이 아니라 어떠한 특수한 기능을 담당 하던 노래를 지칭하던 장르명일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후자에 따르면 ‘도술가’는 유리왕대와 경덕왕대가 공히 정치적·종교적으로 과도기적 시기에 야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만들어진 주술적인 노래라는 점에서 상동적 성격을 지닌다. 한편 최상민(「월명사 <도술가> 일고」)과 배한순(「경덕왕대 향가 연구」)의 연구는 경덕왕대의 혼란했던 정치·사회적 상황을 주목한 논의라는 점에서 공통된다. 최상민은 설화 속의 ‘二日 並現’이 태자책봉을 둘러싼 조정 내 세력간의 권력 쟁투 현상을 비유하고 ‘散花儀式’은 반왕당파에 대한 정치적 시위의 성격을 띤 점을 강조했고, 배한순은 경덕왕대의 혼란과 위기가 오히려 화랑의 정신과 기백을 일깨우기 위한 욕구를 불러일으켜 이 시기에 다수의 향가가 창작될 수 있었던 동인으로 작용한 점을 지적하였다.

그 밖에도 김성기(「<원가>의 연구」)는 배경설화 검토를 통한 작품의 실상을 재고한 결과 <원가>는 활력에 의해서 잣나무가 죽었다 소생한 주술적인 내용을 표방한 작품이 아닌, 효상황이 즉위하여 단행한 인사 등용에서 빠진 신층의 구제를 위한 ‘상소담’으로 볼 것을 제안하였고, 유육례(「<헌화가>의 연구」)는 배경설화 속의 노인의 신분과 ‘獻花’의 의미를 재규명하고자 하였다. 작자 득오의 인간 심리적 발달단계에 관심을 둔 정상균의 논의(「<모죽지랑가> 연구」)는 심리학적 접근이라는 점에서 참신하다면, <도천수대비가>가 불교적 성향과 향가의 전통적 형태가 조화되어 나타난 향가라는 점을 주장한 김종규의 논의(「<도천수대비가> 그 양식적 표현의 巫佛 褶合性」)는 태생적인 무불습합성에 주목한 점에서 특이하다. 한편 최선경(「제의문맥에서 향가의 주술성이 성립되는 조건에 관하여」)은 제의맥락으로 해석되는 향가 배경설화의 사건 전개 과정의 검토를 통해 주가가 성립되는 조건을 찾고자 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2.2. 고려가요, 악장 연구

고려가요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고려시가 전반을 아우르고자 한 논의

에서부터 개별 작품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접근이 모두 시도되었음이 확인된다. 전반적으로 보면 형식론(형태론, 양식론 등)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줄어들었지만 작품의 생성 문맥이나 역사적 배경에 친착한 논의가 상당히 두드러진 특징을 보인다.

먼저 김명준(『악장가사』의 성립과 소재 작품의 전승 양상 연구)의 연구는 문헌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의 부재로 그간 연구가 미진했던 『악장가사』를 문헌학적인 접근을 통해 충실하게 이본을 고찰하고 소재 작품의 형성과 수용 양상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면, 유럽의 문학사회학 이론을 바탕으로 고려시가를 분석한 조기봉의 연구(「고려시가연구」)는 화자가 문학과 사회의 관계 속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였는지를 밝히고자 한 새로운 방법론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고려시대 시가 장르의 전반적인 양상을 조망한 연구로는 박경주의 논의(「전승방식과 음악성을 통해 본 고려시대 시가장르의 흐름」)을 들 수 있다. 여기서는 향가의 쇠퇴에 따라 우리말 시가는 침체한 반면 상대적으로 한문체 시가가 약진한 점에 주목하였다. 전승방식에서 볼 때 향찰의 쇠퇴에 따라 우리말 시가가 제대로 된 표기 방식을 찾지 못한 반면 한문체 시가는 경기체가나 어부가 계열, 승려층의 작품, 속악가사의 일부 작품 등에서 다양한 방식의 전승을 보였고, 음악성 면에서도 향가가 노래로서의 의미를 잃자 고려속요가 그 뒤를 이었으나 이 역시 일정부분 당악 체제의 영향권 내에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는 반면 한문체 시가들은 가창 영역에 편입되어 당대의 지식층 사이에서 유행하는 장르로 발돋움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편 최미정(「고려속요의 유절양식과 분런체의 관련양상 고찰」)은 음악에서의 ‘유절양식’과 문학에서의 ‘연형식 혹은 분런체’의 관련 양상에 초점을 맞추어 고려속요 전반의 형식에 관한 논의를 전개했다. 악보를 통해서 본 음악적 유절양식이, 노랫말이 드러내고 있는 연형식과 관련 맺는 양상을 살핌으로써 고려속요에 있어 유절양식이 발현·정착되어 가는 과정을 논의한 점이 주목된다.

개별 작품론을 살펴보자면 최근 고려가요 전반에 걸쳐 텍스트 해독과 문맥 복원 작업을 통합적으로 진행하여 작품 의미를 새롭게 규명하고자 하는

임주탁의 시도가 단연 돋보인다. <만전춘별사>, <서경별곡>에 이어 지난해에는 <청산별곡>과 <정석가>가 새롭게 조명되었다. <청산별곡>에 대한 논의(「<청산별곡>의 독법과 해석」)에서는 산천 제의와 강화 천도기 고려국의 체제가 주목되었는가 하면 정석가에 대한 논의(「<정석가>의 함의와 생성 문맥」)에서는 강화 천도, 서경 반란, 서북제성의 몽고 귀부, 강화 중심의 국가 대통합 등의 역사적 배경이 주목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역사적 문맥을 재구하는데 치중하다보면 자칫 작품 자체의 ‘문학적 상상력’은 도외시해버릴 위험이 있다. 작품의 톱진한 이해를 위해서는 작품외적 접근뿐만 아니라 작품내적 연구도 충실히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고려가요로 알려진 <정석가>를 악곡분석과 문헌 수록 상태를 통하여 조선 성종조 노래로 추정한 박재민(「<정석가> 발생시기 재고」)은 <정석가>, <서경별곡>, <화태>의 악곡 비교를 토대로 <정석가>가 <서경별곡>과 <화태>의 악곡에 영향을 받아 생겨났으리라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어 흥미롭다. ‘비두로기’가 고려 궁정악에서 ‘유구곡’으로 개칭되기 이전의 원 제목임을 주장한 엄국현의 연구(「고려궁정잔치노래 <비두로기>의 작품분석과 장르적 성격」)에서는 이 작품이 풍요의례 때 불려지는 성을 소재로 한 희극적인 굿노래의 특징과 일치한다는 견해를 보였고, 유경환은 두 편의 논문(「동동의 원형적 상징성」; 「정석가의 원형적 상징성」)을 통해 고려가요에 나타난 인간정신의 상징적 의미를 밝히고자 하였다. 그 밖에 양태순(「<서경별곡>과 이별 민요의 이별의 양상과 정서」), 윤성현(「<이상곡>과 민요에 나타난 이별의 양상 비교」), 허남춘(「고려 처용가와 무가의 주술성 비교」) 등의 연구도 살펴볼 만하다.

시적 화자에 대한 관심은 계속되어 이에 대한 여러 편의 논문이 보고되었다.(김기영, 「<쌍화점>의 내외 공간과 화자의 이중성 고찰」; 나정순, 「고려가요에 나타난 성과 사회적 성격」, 정태성, 「고려속요에 나타난 여성화자의 의식 연구」; 홍인석, 「고려속요의 시적 화자 연구」) 그 가운데 <쌍화점>을 고찰한 김기영의 논의는 폐쇄 공간인 집 안과 개방 공간인 밖이 대조적으로 제시되고 情事 행위의 당사자인 집 안의 화자와 소문을 들은 밖의 화자가 표출하는 심리 현상이 미묘하게 얽혀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작

품의 공간과 화자의 심리를 엮어 고찰하여 연구한 점이 돋보인다. 한편 <쌍화점>과 <만진춘별사>를 대상으로 한 나정순의 연구에서는 <쌍화점>이 당대 사회의 부패한 면모를 풍자하는 사회성을 바탕으로 여성의 성적 욕망을 드러내었고 <만진춘별사>는 상층의 인물에 대한 영속적 만남을 갈구하는 개인의 소망을 바탕으로 성적 욕망을 드러내었다는 점에서 양자 모두 ‘여성화자의 성적 욕망의 표출’이란 공통점을 갖는 것으로 보았다.

경기체가에 대한 논의로는 권호문의 <독락팔곡>과 이회일의 연시조인 <전가팔곡>의 관련 양상을 살핀 김석희의 논의(「<독락팔곡>과 「전가팔곡」의 거리」)가 주목된다. 전자가 산림처사의 자궁과 회의를 동시에 드러내고 있는 반면 후자는 40대 생계주체로서의 영농적 관심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80년의 격차를 두고 지어진 두 작품이 퇴계 이황을 정점으로 하는 영남지방 강호가도의 지속과 변이, 그 편폭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 작품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나주 출신 학자 朴成乾이 지은 경기체가인 <금성별곡>에 주목한 김귀석(「<금성별곡> 연구」)은 이 작품이 나주의 수려한 경치와 빼어난 인물, 그리고 제자 10인의 과거 급제를 기뻐하고 찬양하는 내용을 담은 송축가라는 점에서 조선 중기의 처사 문학적 성격을 보여주는 동시에 <금강별곡>, <만고가> 등 후대의 가사문학에까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았다. 한편 고려 후기 신흥사대부층에 의해 창작된 것으로 생각되는 경기체가와 어부가를 다면적으로 검토한 박경주의 논의(「고려중기 지식층문화에 대한 대안문학으로서 경기체가·어부가의 성격 고찰」) 역시 주목할 만하다.

악장의 연구에서는 단연 조규익의 논의가 대표적이다. 선초악장의 이중성을 밝힌 논의(「계층화의 명분과 기득권 수호 의지」)에서는 국가적 이상이라는 표면적 측면과 담당계층의 현실적 상황이라는 이면적 측면이 악장의 중층구조로 공존하는 점에 초점을 맞추었는가 하면, 태조조~성종조까지의 악장을 대상으로 한 논의(「조선조 악장의 통시적 의미」)에서는 예악문화의 흐름과 그 양상을 통시적으로 고찰한 점이 주목된다. 한편 최고 통치자의 입장에서 궁중예술인 정재를 주도하고 다수의 악장까지 창작한 익종 임금에 대한 논의(「익종 악장 연구」)는 무척 흥미롭다. 여기서는 익종

이 지은 56편의 약장을 ‘제향약장, 연향약장, 가사’의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살폈는데, 제향약장을 통해서도 표면적으로는 존주의식과 이면적으로는 존왕의식을 고취시킴과 더불어 왕권회복의 의지를 피력하고 연향약장을 통해서도 임금을 정점으로 이루어진 지배질서를 공고히 하고자 한 익종의 의지를 읽어낸 점에 의의가 있다. 한편 박기호(「<구실등가>와 <용비어천가>의 비교 연구」)는 고려의 대표적인 종묘 제례악인 <구실등가>와 조선의 대표적인 종묘 제례악인 <용비어천가> 사이에 상당한 친연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는데, 이 두 작품을 통해 고려말에서 조선초까지 이루어지는 시가사의 흐름이 단절되지 않고 부정을 통한 계승으로 이어져 온 점을 확인했다는 점은 값진 성과라 할 수 있다.

2.3. 시조 연구

시조의 연구 경향을 살펴보면 신자료 발굴 및 주석, 가객과 가단 및 가집에 대한 연구, 19세기의 가곡의 향유 실상 고찰, 사설시조의 새로운 조명, 시조와 한시의 관련 양상 고찰, 특정 작가에 대한 관심, 시조의 현대화 방안 모색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 가운데 사설시조가 시학적인 측면에서 재검토된 것을 비롯하여 다양한 방면에서 활발히 연구된 성과가 두드러진다. 시조의 한역화에 대한 관심이 지속된 것과 더불어 시조와 한시의 관련성에 주목한 성과들이 눈에 띄는 한편 새롭게 대두된 시조의 현대화 방안 모색은 최근 각 분야에서 시도되고 있는 문화정보시스템구축의 흐름과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시사적이다.

먼저 신자료 발굴 및 기초 문헌 자료의 번역과 관련해서는 조선시대 원예문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인 『화암수록』의 저자가 유박임을 밝히고 그 속에 수록된 <화암구곡>의 시조사적 중요성을 논한 정민의 연구(「<화암구곡>의 작가 柳璣(1730~1787)과 『花庵隨錄』」)를 살펴볼 만하다. 아울러 김신중(『역주 금옥총부』)이 안민영의 시조 181수를 가곡창의 곡조별로 분류 수록하고 있는 『금옥총부』를 역주하여 연구자들에게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한 것도 중요한 성과이다. 이 책은 역주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안민영과 『금옥총부』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저자 나름대로 정리해 보여주고 있는 점에서 단순 자료집의 성격을 넘어서고 있다.

가객과 가단, 가집에 대한 논의도 꾸준히 계속되었다. 안민영이 승평계를 연 것을 축하하기 위해 만든 親筆本 개인 가집인 『승평곡』이 최근 발굴된 것을 계기로 승평계의 전반적인 성격을 재검토한 김석배의 논의(「승평계 연구」)는 승평계의 성격과 그 구성원을 상세히 밝히고 있는 점에 의의가 있다. 김천택이 시조사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주목한 강재현(「남파 김천택의 시조 인식과 시조사적 의의」)은 김천택이 일개 가객의 가집 편찬이라는 소극적인 역할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시조 문학 주체를 사대부에서 여항인으로 옮기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조선후기 가객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은 강지행(「남파시조의 공간 유형과 그 의미」)과 김해숙(「김수장 시조 문학 연구」)의 연구에서도 확인되는 바이다.

한편 이상원(「18세기 가집 편찬과 『청구영언 정문연본』의 위상」)은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는 『청구영언』이 기존의 논의와는 달리 『청구영언 진본』을 계승한 18세기 중반 가집이면서 『해동가요』와는 계통을 달리하는 가집이라는 점을 밝히고 편찬자도 김수장이 아닌 김석일 것으로 추정하였다. 19세기 초중반 가집 『청구영언 육당본』의 노랫말에 관한 분석적 고찰을 시도한 김석희의 논의(「19세기 초중반 가집의 노랫말 변용양상」(2))는 노랫말 변용 양상의 면밀한 파악을 통해 시가사의 구도를 좀더 정세하게 가다듬기 위한 연속 작업의 결과물이라면, 19세기 가집의 존재 양상을 통해 이 시기의 가곡 향유의 실상을 드러내고자 한 성무경의 시도(「가곡 가집 『영언』의 문화적 도상」; 「19세기 초반, 가곡의 향유의 한 단면」)는 연구자의 오랜 관심과 노력에서 비롯된 성과라 할 수 있다. 조선후기 시조창의 형성과 전개 방향을 고찰한 권순희의 논의(「조선후기 시조창의 형성과 전개 방향」)도 이런 흐름과 맞물려 함께 소개될 만하다.

시조의 전승과 향유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진행되었는바 향촌 사족 집안에서 행해진 시조의 창작과 향유, 전승 과정을 자세히 살핀 조해숙의 논의

(「전승과 향유를 통해 본 <개암십이곡>의 성격과 의미」)가 주목할 만하다. 서정적 감흥을 표출하기 위하여 창작된 개인의 노래가 위기의 시대를 건너면서 한 집안의 재흥과 결속을 매개하는 상징물이 되고 그러한 전통의 관습화가 마침내 일문이 속한 향촌 사회 전체의 시조 향유와 전승의 문화 공유 양태로 나타나게 된 정황을 치밀하게 추론한 점이 돋보인다. 무엇보다 18세기 이후에도 시조가 향촌의 생활문화를 주도하는 역할을 여전히 진지하게 수행하고 있었다고 하는 시조사의 이면적인 국면을 포착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한편 사설시조에 대한 연구는 다방면에서 이루어졌는데 먼저 사설시조의 언어와 사설시조 담당층의 의식 사이의 상동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의미 있는 논의를 펼친 조세형의 연구(「사설시조의 시학적 고찰」, 「사설시조의 중층성과 욕망의 언어」)를 들 수 있다. 특히 사설시조의 시학을 새롭게 재검토했던 점이 주목되는바 ‘사설시조’라는 동일한 틀로 묶여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는 사설시조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자질들을 공유하는 경우와 그에서 벗어나 또 다른 장르와 접속하려 한 경우도 있음을 확인하고 이러한 양상을 ‘중층성’이란 개념으로 정리한 점이 주목된다. 곧 사설시조라는 하나의 장르, 「만황청류」라는 하나의 텍스트에는 여러 계층의식을 대변하는 담론들이 복층 구조를 형성하고 있음을 밝힌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사설시조의 담당층에 대한 논의는 조해숙(「사설시조의 담당층과 문학적 성격」)과 길진숙(「사설시조 담당층과 미의식의 변증」)에 의해 계속되었는데 특히 전자의 논의는 그동안 사설시조 연구사의 한 중심축을 형성했던 담당층을 둘러싼 논쟁을 명쾌하게 정리했다는 점에서 괄목할만하다. 사설시조의 성적 모티프의 재조명을 시도한 김홍규(「사설시조의 애욕과 성적 모티프에 대한 재조명」, 「사설시조의 俗僧—애욕의 모티프」)와 현실인식의 표출양상에 초점을 맞춘 조은숙(「사설시조에 나타난 현실인식의 표출양상 연구」)의 논의도 눈에 띈다. 사설시조의 형식적·내용적 층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희극적 특징에 주목한 고정희의 논의(「사설시조의 희극적 특징 고찰」) 역시 주목할 만하다. 여기서는 사설시조의 장형성, 유

희성, 탈규범성, 성과 애욕의 문제 등 사설시조 장르의 정체성과 관련된 제반 요소들은 거의 다 희극적 외양을 가지는데 이는 사설시조에 나타난, 평시조적인 충동과 그것에서 벗어나려는 충동의 불일치가 희극성과 본질적인 친연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한편 시조의 텍스트 파생 양상에 주목한 김학성의 논의(「시조의 텍스트 파생 양상과 그 의미」)는 무엇보다 그 파생 양상이 평시조→사설시조의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 역방향도 상당수 존재함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아울러 평시조와 사설시조의 이러한 파생 관계가 서양의 패러디와 같은 대응 혹은 반하는 관계가 아닌 친화관계에 의해 서로의 존재의미를 살리는 相生의 문화담론의 관계를 가지는 점까지 밝힌 점 역시 주목된다. 한편 17세기 시조 연구의 쟁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고찰한 고정희의 논의(「17세기 시조 연구의 쟁점과 그 방법론적 성격」)와 시조에 나타난 ‘병렬’의 의미를 밝힌 김수경의 논의(「시조에 나타난 병렬법의 시학」) 역시 살펴볼 만하다.

시조와 한시의 관련양상에 주목한 연구는 그 역사가 오래되었는데 2003년도 역시 그 역사의 흐름을 이어갔다. 일찍이 시조와 한시 사이의 양식적 넘나듦에 주목한 조혜숙(「17세기 시조 한역의 성격과 의미」)은 그간의 연구를 이어 17세기의 시조 한역 양상을 고찰하였다. 시조 한역의 전개 과정은 한역 초기 단계부터 과도기와 발전기를 거쳐 고착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자기 양식 내에서의 확장과 수용, 전환 혹은 변용의 양상을 거치면서 역동적으로 그 시대와 문학사에 조응해 나간 것으로 보고 시조 한역 양상에 대한 통시적 접근은 궁극적으로 시조사의 복원 작업에 기여할 때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이 밖에도 이정선(「조선후기 한시와 사설시조의 정서적 친연성 고찰」)과 안현수(「한시와 시조의 비교 연구」)의 논의도 같은 맥락으로 파악될 수 있는 성과이다.

유형별 연구에 있어서는 ‘훈민시조’에 대한 다양한 논의(권정은, 「훈민시조의 창작기반과 다원적 진술양상」; 최규수, 「훈민형 시가에서 말하기 방식의 특징과 효 윤리의 의미」; 전재강, 「훈민시조 작가와 작품의 역사적 성격」; 고재일, 「오류가연구」)와 자연시조(전가시조)에 대한 논의(신

영명, 「전가시조인가, 자영농시가인가?」; 정홍모, 「조선조 시조에 나타난 자연관의 변모 양상」)가 눈에 띈다. 한편 기녀시조에 대한 관심 역시 지속적인 성과를 이룩하였는데(김상진, 「기녀시조의 맥락과 황진이 시조의 판 프라탈」; 정윤희, 「기녀시조 연구」; 최정숙, 「기녀시조의 공간 의식 연구」) 이와 관련하여 비록 직접적으로 시조를 대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조선조 기녀시가를 보다 정확한 안목에서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는 점에서 최미정의 논의(「직업을 가진 조선시대 여성에 대한 연구 방법 고찰」)도 이 자리에서 함께 소개하고자 한다.

특정 작가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최현재는 박인로에 대한 연구(「교훈시조의 전통과 박인로의 <오류가>」)를 통해 그의 작품이 몰락 향반의 입장에서 지어진 것으로 보기보다는 재지사족으로서 지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을 역설하였다. 실제 박인로가 영천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지위를 인정받은 재지사족으로의 면모를 지녔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논의의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전재강(「황윤석 시조의 교술적 성격과 작가 의식」)은 조선 후기 사대부 시조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황윤석 시조에 주목하여 작품에 교술적 성격이 상당히 드러나게 된 배경에는 작자의 정치·경제적으로 상승하려는 의식과 이념 지향적 의식이 작용하고 있음을 밝혀내었다. 한편 사대부로서 450여수의 시조를 남긴 이세보에 대한 연구(이명희, 「이세보 시조 연구」; 이동규, 「이세보 시조의 동물 상징성 연구」)와 김득연(이은경, 「김득연의 시조 연구」)이나 이정보(전계영, 「이정보 시조의 연구」)에 대한 연구는 모두 학위논문으로 제출된 공통점을 보였다. 정철과 윤선도에 대한 관심 역시 지속되었고(김진욱, 「정철 시조의 문학적 특성」; 장명덕, 「윤고산 문학 연구」; 신은경, 「자아탐구의 여정으로서의 <산중신곡>과 <어부사시사>: 공간의식을 중심으로」; 박길남, 「고산 윤선도 시조의 공간적 추이와 그 의미」; 전일환, 「고산 윤선도 국문시가의 수사미학」) 위백규에 대해서도 연구가 계속되었다.(김석희, 「위백규 문학의 평전적 검토 시론」; 이상원, <도통가>와 <황강구곡가> 창작의 정치적 배경)

개별 작품론을 살펴보면 <어부가>에 대해 다각도로 연구가 진행된 것

이 눈에 띈다.(양희찬, 「이현보 <어부가>에 담긴 두 현실에 대한 인식구조; 정무룡, 「농암 이현보의 장·단 <어부가> 연구(I), (II)」; 여기현, 「어부가 엮어 읽기」; 이정엽, 「어부가·표해록·어로요에 나타난 해양 인식 태도」) 이 가운데 이현보의 <어부가>에 담겨 있는 ‘강호’와 ‘사회(조정)’라는 두 현실에 대한 인식구조를 면밀히 고찰한 양희찬의 논의가 돋보인다. 한편 율곡 이이의 <고산구곡가>의 미적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 논의(김병국, 「<무이도가>와 <고산구곡가>의 품격 연구」)는 품격적 측면에서 朱子의 <무이도가>와의 비교를 시도한 점이 참신하다. 이에 따르면 <무이도가>는 ‘閑美清適’의 품격을, <고산구곡가>는 ‘沖澹蕭散’의 품격을 지니고 있는데 두 품격 간의 상관성을 고찰한 결과 후자가 전자의 시세계를 창조적으로 계승한 의의를 갖고 있다고 보았다. <고산구곡가>에 대한 관심은 이상원(「조선후기 <고산구곡가> 수용양상과 그 의미」)에 의해서 계속되었다. 그 밖에 신연우(「<도산잡영>과 <도산십이곡>에서의 ‘흥」)의 논의도 주목할 만하다.

한편 시조의 현대화 혹은 대중화 방안 또는 문화콘텐츠로서의 시조 문학에 대한 논의는 디지털시대 또는 정보화시대의 흐름에 조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시조문화 정보시스템 개발 가능성을 논의한 한창훈의 연구(「시조문화 정보시스템 개발의 가능성과 전망」)는 최근 여러 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규모 한국학 관련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문화콘텐츠로서 시조가 가질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한 점에서 시사하는 바 크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고전문학의 현재적 의미 규명 혹은 연구의 대중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타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바²⁾ 시가 분야 역시 새로운 비전을 통해 거듭나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

2) 이와 관련해서는 송성옥(「고전소설과 TV드라마」, 『국어국문학』 137, 국어국문학회, 2004), 정병설(「고전소설과 텔레비전드라마의 비교」, 한국고소설학회 제64차 정기학술대회 발표문, 2004), 김수중(「설화 연구의 대중화 가능성」, 『한국언어문학』 제51집, 한국언어학회, 2003.), 설성경(「구운몽의 현대적 계승」, 『배달말』 27, 배달말학회, 2000 ; 「고전문학 연구의 대중화 방안」, 『돈암어문학』 제12집, 돈암어문학회, 1999.), 강혜선(「한문학 연구의 대중화 방안」, 『돈암어문학』 제12집, 돈암어문학회, 1999.) 등의 논의를 참고할 만하다.

2.4. 가사 연구

가사 연구에 있어서는 여성에 대한 관심을 근간으로 한 규방가사의 새로운 조명, 신자료의 발굴 및 소개, 장르적 성격 규명, 가사의 향유 양상 고찰 등이 주된 관심사를 차지한다.

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경향을 꼽는다면 단연 ‘여성에 대한 관심’이다. 여성에 대한 혹은 규방가사에 대한 관심은 어느 때보다도 증폭되어 그에 대한 연구 성과가 상당수 보고되었다. 먼저 사족층의 京鄕分岐 추세에 대한 고려를 통해 향촌사족 가문 여성들의 삶과 문학을 고찰한 김석희의 논의(「조선후기 향촌사족층 여성의 삶과 시집살이 서사」)는 조선후기 규방가사 산출 맥락을 좀더 사회사적 실상에 밀착시켜 파악하고자 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오늘날 우리의 눈에 다소 부정확적으로 보이는 <복선화음가>의 치산 행위가 당대로서는 출구 없는 향촌사족층 가문의 새로운 진로 모색이라는 화두와 직결된 것이고, <복선화음가>적인 부녀형상은 향촌사족층 여성들에 의해 창출되어 나온 ‘여성영웅’의 하나로서 현실타개를 위한 여성들의 꿈과 열망을 반영한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무척 흥미롭다.

별명 출신의 사족 여성이 자신의 전반생을 회고하여 서술한 <이정양가록>에 주목한 박애경의 논의(「장편가사 <이정양가록>에 나타난 사족 여성의 삶과 내면의식」)와 한 여자의 혼인에 얽힌 기구한 일생을 그 어머니와 여자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 복합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신가진>에 주목한 서영숙의 논의(「가사 <신가진>에 나타난 여성의 현실과 인식」) 그리고 <복선화음가>의 여성화자에 주목한 길진숙의 논의(「여성으로 말하기, 그 안과 밖」; 「상사가류 가사에 나타난 사랑의 수사」)는 모두 여성에 대한 연구자의 각별한 관심을 반영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신경숙 「규방가사, 그 탄식 시편을 읽는 방법」과 정길재 「규방가사의 사적 전개와 여성의식의 변모」, 숙대 박사논문의 논의도 주목할 만하다.

규방가사 가운데 특별히 조명을 받았던 작품이라면 단연 <뎨동어미화전가>를 꼽을 수 있다. 고정희(「<뎨동어미화전가>의 미적 특징과 아이러니」)가 비극적 문제의식을 지니면서도 ‘신명풀이’적 요소가 있는 이 작품

의 미적 특징을 서구의 아이러니 미학과 비교 검토함으로써 그 특징을 해명하고 나아가 한국고전시가의 미학적 보편성과 특수성까지 가늠해 보고자 하는 의욕적인 시도를 보였다면, 김대행(「<덴동어미화전가>와 팔자의 원형」)은 이 작품이 ‘화전가’의 구조를 취하고 있는 동시에 철저히 독자적인 면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그 외 함복희의 연구(「<덴동어미화전가>의 서술특성과 주제적 의미」)에서는 이 작품의 서술특성을 밝히고자 하였으나 선행 연구 성과를 재확인하는 데 그친 아쉬움이 있다.

개별 작품론으로는 상대적으로 학계의 연구가 미진했던 <노처녀가 I>을 집중적으로 조명한 고순희의 논의(「<노처녀가 I> 연구」)가 주목된다. 양반가 노처녀의 문제를 다룬 <노처녀가 I>과 상민가 노처녀의 기이한 행동을 다룬 <노처녀가 II>는 작가의식 면에서 전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함과 아울러 두 작품이 18세기 노처녀 담론 안에서 서로 다른 작가에 의해 창작된 동시대적 창작 기반을 지닌 작품으로 볼 것을 주장하였다.

신자료의 발굴 및 소개는 가사문학사를 보충하고 그 가치를 자리매김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작업이 아닐 수 없다. 아울러 과거에 서지사항만 간단히 소개되었던 작품을 꼼꼼히 재검토하여 보고하는 작업 역시 의의를 가진다. 작자가 거명되지 않았던 <사군별곡>의 작자를 밝혀낸 강전섭의 논의(「小岳樓 李柔의 <子規三疊>과 <四郡別曲>에 대하여」)를 비롯하여 김팔남(「福川 李太守作 <望美人歌>의 주제형상화 고찰」), 류연석(「해남윤씨종가소장 규방가사 연구」), 조평환(「신발굴 동학가사 <海月神師讚歌> 연구」)등의 연구가 주목된다.

박연호에 의해 꾸준히 지속되고 있는 가사의 장르론적 연구(「조선후기 가사의 장르적 특성」; 「가사의 장르적 성격과 미적 구현 방식」; 『가사문학 장르론』)는 장르 연구 자체의 어려움 때문인지 최근에는 담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가사의 향유에 대한 윤덕진의 논의(19세기 가사집을 통해 본 가사의 향유의 실상)는 가사집에 대한 연구자의 오랜 관심과 노력이 묻어나는 성과로 주목할 만하다. 시조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록문헌에 대한 연구가 미진했던 만큼 이러한 논의가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성무경의 논의(「<상사별곡>의 사설짜임과 애정형상의 보편

성)는 가창가사에 대한 연구자의 지속적인 관심의 결과물이나 이미 여러 편의 논문에서 주장한 바를 반복하고 있는 점에서 다소 아쉬운 감이 있다.

유형별 연구를 살펴보자면 앞서 살핀 규방가사 외에 누정가사, ‘록자류’가사, 서민가사, 교훈가사, 유배가사에 대한 연구가 주목된다. 먼저 강호가사나 기행가사에 대한 관심이 다소 줄어든 대신 강호가사의 하위 영역으로 볼 수 있는 ‘누정가사’에 대한 접근이 시도되었다. 권정은(「누정가사의 공간인식과 미적 체험」)은 강호가사 가운데 누정이라는 건축물을 작품 창작의 주요 모티브로 설정하는 가사를 누정가사라 이르고 이들 작품에 드러난 공간인식과 미적 체험 양상에 주목하였다. 가사의 제목이 ‘록’으로 끝나는 일군의 작품을 ‘록자류’ 가사로 범주화하고 그 존재양상을 살핀 박애경의 논의(「‘록자류’ 가사의 존재 양상과 그 의미」) 역시 새로운 가사 유형을 선보인 점에서 권정은의 논의와 상통하는 면이 있다.

한편 서민가사의 실체성을 파악한 논의(강경호, 「서민가사의 실체성 연구」)는 ‘서민가사’의 범주에 드는 가사가 사실 ‘서민화 경향’을 표출하는 작품들이 아니라 조선 후기 탈계층적 문화공간에 기반을 두며 문화예술사의 변모과정 속에서 유동적으로 변화해 간 텍스트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19~20세기 초반에 전승·향유된 작자성이 상실된 교훈가사에 대한 육민수의 연구(「조선후기 교훈가사의 담론 특성 연구」)는 작자성이 상실된 교훈가사가 수많은 텍스트 적층을 이루며 활발하게 향유될 수 있었던 사회적, 문화적 기반을 고려하여 이들 텍스트의 담론 특성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오랜 및 일반적 행위규범의 제시와 실천 요구라는 딱딱한 이념 일반도의 교훈가사를 당대 향유층이 즐겨 향유한 것은 자신의 교양정도를 나타내고 나아가 문화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밝히고, 그 이면에는 사대부담론을 뛰어 넘어 사회, 문화의 주류로 부상하는 대중담론의 작용이 있었음을 논하였다. 한편 유배가사에 대한 논의는 최상은(「유배가사 작품구조의 전통과 변모」)에 의해 거듭되었는데 도출된 결론은 그간의 연구 성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전일환의 연구(「<사미인곡>과 <만분가>의 관련성」)도 동일한 맥락으로 수렴될 수 있을 듯하다.

이밖에 특정 작가에 대한 연구 성과 가운데 박인로에 대한 연구(최현재,

「제지사족으로서 박인로의 삶과 <누항사>」)와 조우인의 시가를 새롭게 고찰한 김봉선의 논의(「신재 조우인 시가 연구」)가 눈에 띈다. 특히 후자의 논의는 조우인이 선행 가사를 典範으로 삼아 새로운 의미로 개작할 만큼 그 스스로 변화의 흐름을 인식하고 있었던 인물임을 부각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한편 윤영옥(「<성산별곡>의 해석」)과 박노준(「<해유가>와 <서유견문록> 견주어 보기」)의 논의도 주목할 만하다.

2.5. 잡가, 시가교육, 기타 일반론

잡가가 독립적인 역사적 갈래로 인정되면서 잡가 연구는 여러 방면에서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어 오고 있다. 먼저 잡가의 개념이 형성되고 범주화하는 과정을 살핀 박애경의 논의(「잡가의 개념과 범주의 문제」)가 19~20세기 가창문화권을 이해하고자 하는 기본 맥락에서 시도된 것이라면, 최동안의 논의(「잡가의 형식적 특성」; 「잡가연구」)는 잡가라는 장르 자체를 다방면에서 포괄적으로 연구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이형태(「휘모리잡가의 사설 짜임과 웃음 창출 방식」)와 이해경(「휘모리잡가의 사설 형성원리와 향유양상」)은 공히 19세기 초반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대중에게 크게 유행되었던 휘모리잡가의 사설 형성 원리에 주목하였다.

한편 19세기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것도 두드러진 경향의 하나로 볼 수 있는데, 이 시기의 문화가 단일한 시각으로는 포섭되지 않는 다양성과 중층성을 내포하면서 근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성격을 보인다는 점에서 연구자들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박애경(「19세기 도시유흥에 나타난 도시인의 삶과 욕망」)은 주로 ‘도시유흥’의 면에 천착하였고 성무경은 음악적인 측면에 관심을 두었다. 성무경(「19세기 국문 시가의 구도와 해석의 지평」)은 이 시기에 전통장르의 해체와 변화, 새로운 장르의 파생, 활발한 문학소통에 따른 텍스트간 상호대화성의 증폭, 문학 담당층의 전이와 확산, 주제의식의 다면화 등이 여러 문화권을 형성하며 복잡한 장르운동의 궤적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고 주로 시조와 가사의 향유양상을 고찰하였다. 한편 19세기 秀才의 문화지형을 고찰한 논의(「조선후

기 秀才와 歌曲의 관계)에서는 그동안 잘 포착되지 않았던 정재와 가곡이 관계를 맺는 국면을 조명해 봄으로써 가곡과 정재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여기서는 정재가 궁중정재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되었던 기존의 견해와는 달리 궁정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관변과 교방에서 공연되고 이습되던 공연물이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조선 후기 특히 19세기 가곡이 전형성을 중시하는 정재의 창사로 집중 부각된 사실을 밝혔다.

고전시가와 한시와의 관련 양상은 앞서 시조 연구에서도 살핀 바 있는데, 한시와의 연관을 통해 고전시가를 새롭게 바라보고자 한 일련의 논의(이종묵, 「한시 속에 삽입된 옛노래」; 안대회, 「나비, 사랑의 화신」; 정민, 「한시와 고려가요 4제」)들은 참신한 시도로 평가된다. 이밖에 최계남(「국문시가와 한시의 존재 기반과 미의식의 층위」)과 성호경(「한국 고전 시가에 끼친 중국시가의 영향에 대한 연구」)의 연구 또한 주목할 만하다. 특히 후자의 논의는 우리 시가의 발달이 자체의 내부적 전통의 계승 및 극복을 중심축으로 하여 이루어진 만큼 중국시가의 영향은 대체로 우리나라 시가계의 내부적 전통을 바탕으로 한 위에서 우리 시가를 보다 풍부하고 다채롭게 하였다는 정도를 크게 넘어서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점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한편 시가문학 일반과 관련하여 단행본의 형태로 학계에 보고된 연구 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김석희의 『조선후기 시가연구』는 『존재 위백규 문학 연구』(이회문화사, 1995) 이후 두 번째 저서로서 저자가 그동안 학계에 보고했던 논문들을 각각 꼼꼼히 다듬어 집대성한 것이다. 최계남의 『서정시가의 인식과 미학』 역시 『사림의 향촌생활과 시가문학』(국학자료원, 1997) 이후 향촌, 사림, 서정, 미학의 화두를 중심으로 그동안의 연과 성과를 한 데 묶어 보고한 결과물이라 하겠다. 한국고전연구성문학회에서 편찬한 『고전문학과 여성화자, 그 글쓰기의 전략』은 그동안 학계에서 활발히 진행되었던 여성화자 관련 논의를 한데 묶어 내놓았다는 점에서 이 분야의 연구 성과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박노준의 『옛사람 옛노래 향가와 속요』는 향가와 고려가요를 보다 대중들에게 친근히 소개하기 위한 시도로 평가되는 반면 『고전시가 엮어 읽

기』(상, 하)는 정년기념논문집으로서 여러 연구자들이 우리 시가작품을 ‘엮어 읽고 가로질러 읽은’ 결과물의 집합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 실린 대부분의 논문들은 연구자들의 기왕의 연구 성과를 답습한 경우가 많아 참신한 결과물로 보기 어렵고 또한 이런 논문을 모아 놓은 단행본 역시 편집적인 성격의 혐의를 벗어날 수 없어 보인다. 최근 이러한 성격의 단행본들이 종종 출간되고 있는데 논의의 참신성이나 독창성이 확보되지 못한 글들이 수록되는 점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인권환 외 여러 연구자들의 공저로 나온 『고전문학연구의 쟁점적 과제와 전망』(상, 하)은 고전문학의 각 영역에서 전개된 첨예한 쟁점들을 정리하고 그 해결을 모색하고자 한 의욕적인 노력의 결과물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국문학 연구가 세분화되면서 연구자 간 소통의 기회도 줄어들고 전공별로 폐쇄적으로 전개되어 가는 현재 당면한 문제점을 되짚어보고자 한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고전문학의 각 영역별 연구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세분화된 영역 안에서 쟁점을 확인하는 데 머물고 있는 점이 아쉽다.

한편 권오경의 『고악보소재 시가문학연구』는 고악보(금보, 양금보, 가야금보)에 수록된 시가작품을 대상으로 각 시대별 가곡 및 시조, 민요의 전개와 특징을 살핀 것으로 시가문학과 음악의 상관성에 대한 저자의 오랜 고민과 관심의 결실이라 할 수 있다. 고악보 소재 시가작품 전체를 일람할 수 있는 목차와 작품 및 곡조의 존재양상, 고악보에 실린 각종 서·발문의 원문 및 해석문을 첨가한 자료편과 더불어 그동안 저자가 학계에 발표한 논문들을 보완한 연구편을 함께 수록하여 이 분야에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윤광봉의 『고전시가와 연희』는 놀이적 요소가 있는 우리 시가를 대상으로 하여 우리 시가를 고구하고자 했던 『한국연희시연구』(이우출판사, 1985)를 이은 연구 성과로 한 편의 시가가 나온 배경과 그 시가의 현장성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민속과 연희적인 요소는 물론 이우나 라인 중국과 일본의 민속과 연희도 함께 고찰해야 함을 피력함으로써 시가 연구에 있어 자칫 빠지기 쉬운 협소한 시각에서 오는 독단의 위험성을 경계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 문학과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동아시아 문화

권으로 넓히고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볼 것을 강조한 점에 그 의의가 있다.

고전시가를 현대시와 접맥하여 고찰한 논의(김수경, 「고전시가와 현대시에 나타난 병렬의 방식」; 이도흠(「화엄의 패러다임으로 향가와 현대시 엮어 읽기」; 김인환, 「고전시가와 현대시의 통합과 확산」; 신익철의 「고전시가와 현대시에 나타난 낙화의 형상」; 임주탁, 「한국 근대시의 형성 과정 연구」)는 우리 문학을 계승적 측면에서 새롭게 고찰해 낸 결과로 값진 성과가 아닐 수 없다.

한편 중등학교에서의 시가 교육과 관련한 연구도 꾸준히 계속되었는데 특히 고영화(「감정이입의 표현교육론적 의의 연구—조선조 시가를 중심으로」), 염은열(「기행가사 감상의 경험적 성격과 의의」), 조희정(「<도산 십이곡>에 대한 교육 담론 속의 독해」), 이찬욱(「시조 낭송의 콘텐츠화 연구」) 등의 연구가 주목된다. 이 외에도 다수의 학위논문이 학계에 보고되었다.³⁾

3. 맺음말

이상에서 2003년 한 해 동안 발표된 시가 분야의 논저를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끝으로 고전시가의 각 분야별로 살핀 연구 동향을 정리하면서 두드러진 특징들을 몇 가지 짚어보는 것으로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여성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폭되어 표출된 점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는 주로 가사 장르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향촌사족 가문의 여성의 삶에 주목함으로써 ‘생활문학’으로서의 규방가사의 올바른 이해를 도모한 점이 돋보인다. 한편 다소 연구가 미진했던 작품뿐만 아니라 이미 익숙하게 알려진 작품에 대해서도 새로운 방법론을 통해 작품의 여성성을 재검토하는 작업은 무척 긍정적인 시도로 평가된다. 그러나 여성에 대한 관심, 여성

3) 시가교육 관련 학위논문에 대한 소개는 본문에서는 생략하고 자료목록에 그 서지사항만 기재하도록 한다.

문학에 대한 관심이 비단 남성위주의 세계관, 문학관에 대한 저항 심리의 차원에서 벗어나 그 자체 고유한 연구 영역으로 자리매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연구자들의 객관적인 시각이 전제되어야 하리라 생각한다. 여성 문학 연구자들의 대다수가 여성이라는 점은 그들의 연구가 자칫 객관성을 잃고 주관적으로 흐를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한다. 지나치게 여성을 부각시켜 작품의 실상을 왜곡하는 우를 범하지 않고 항상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기준에 의해 평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작품 생성의 문맥을 복원하고자 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경주된 점이다. 특히 고려가요를 통해 그 연구 성과가 축적되고 있는데 창작의 주체와 시기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장르의 특성상 이러한 연구 방법은 상당히 유효하리라 본다. 그러나 역사적 문맥 재구에 치중한 나머지 작품 자체의 문학적 상상력을 위축시키거나 도외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사실 작품 외적 접근의 목표는 결국 작품의 실상과 꺾인 이해에 한걸음 더 다가가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작품 외적 정보를 무시한 채 작품 자체의 시적 정서만을 탐색하는 것도 바람직한 연구의 자세는 아닐 것이다. 작품내적 연구와 작품 외적 접근이 서로 균형감 있게 이루어질 때 비로소 올바른 작품론이 가능해질 것이라 생각된다.

셋째, 전반적으로 볼 때 조선후기 시가 문학의 큰 특징 중의 하나로 꼽을 수 있는 대중화·통속화에 대한 관심이 다소 완화되었다는 점이다. 한동안 조선후기의 문학 유산에서 근대적 요소를 찾고자 하는 노력은 이른바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에 해당하는 17~19세기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다. 그런데 최근에는 근대 이행기에 대한 관심이 진정되면서 그 연구 편수도 줄어들어 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런 가운데 다만 19세기에 대한 관심이 새삼 두드러졌던 점이 지난해의 눈에 띄는 양상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의 연구가 주로 18세기에 치중되었던 바 19세기는 18세기의 연장선상에서 혹은 ‘조선후기’라는 큰 틀 속에서 범박하게 이해된 경향이 있었던 반면, 근래에는 19세기를 문학사의 뚜렷한 한 시기로 독립시켜 그 특징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이들 논의에서는 19세기를 주로 도시 유흥 문화의 확산 시기로 설명하고 있는데, 동시에 이 시기가 단일한 시각으로는 포

쉽되지 않는 다양성, 중층성을 내포한 시기임을 고려하는 신중함도 견지하고 있다. 다만 19세기라는 시기를 너무 독립적으로 분리시켜 고찰하다보면 오히려 단선적인 논의로 귀착될 우려가 있다고 본다. 오히려 앞선 시기인 17세기, 18세기와의 긴밀한 관련 하에 유연하게 고찰하는 것이 이 시기 문학의 실상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넷째, 고전시가의 현대화 또는 대중화 방안에 대한 관심이 제기된 점이다. 아직 구체적인 연구 성과는 미미한 단계이지만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대의 흐름에서 보자면 앞으로 시가 연구에 있어 요구될 것으로 전망되는 사안인 만큼 주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에는 먼저 구체적인 문화콘텐츠의 개발, 문화정보시스템의 구축 등의 정보화사업을 들 수 있다. 현재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으로 추진되고 있는 문화지도 구축사업⁴⁾ 혹은 문화정보시스템 개발사업⁵⁾은 그 한 예로 참고할 만하다. 다만 이러한 정보화사업은 자칫 그 자체가 최종 목표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데 정보화사업의 성과를 도구로 삼아 문학 연구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는데 궁극적인 지향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본다. 한편 고전시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거나 현대사와 접맥하여 고찰하고자 한 연구 또한 고전시가의 현대화, 대중화 방안에 있어 상당히 고무적인 성과로 받아들여진다. 한문학 분야의 경우 어렵고 딱딱하게만 느껴졌던 작품들을 현대적인 필체로 산뜻

4) 고대 민족문화연구원에서는 ‘조선시대 전자문화지도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김홍규(「<조선시대 전자문화지도 연구>의 인문학적 의미와 전망」, 『민족문화연구』 38, 고대 민족문화연구소, 2003.), 권순희(「조선시대 전자문화지도 Dataset 구현 방안」, 『민족문화연구』 38, 고대 민족문화연구소, 2003.), 이형대(「디지털 정보시대의 문화지도 그리기」, 『민족문화연구』 38, 고대 민족문화연구소, 2003.) 등의 논문을 참고 바란다.

5) 필자가 참여하고 있는 ‘호남문화 자료조사와 문화정보시스템 개발연구’ 사업에서는 호남문화를 총 12개 분야(고고/역사/언어/문학/사상/미술/음악/음식/주거/연회/축제/시스템)로 나누어 각각의 정보를 시스템 구축의 양식에 맞춰 입력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그 중 ‘문학’의 경우를 보자면 대분류—중분류—소분류—상세분류의 코드(예: 문학—고전문학—국문문학—시조/가사)에 따라 원하는 문학 정보(작가 혹은 작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나아가 문학 정보와 관련된 인접 분야의 정보(예: 주거분야의 ‘식영정’, ‘송강정’의 정보)와도 연계될 수 있도록 보완 중이다. 실제로 시스템을 활용함에 있어서는 어느 하나의 원리로 환원되는 것이 아닌 인접 정보코드와의 접속을 통해 새로운 의미 창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하게 번역하여 대중들에게 선보이는 일련의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런 흐름을 목도하면서 고전시가분야에서는 과연 얼마만큼의 노력이 경주되고 있는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 고전시가야말로 대중들이 쉽고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교양의 산실이 될 만한 충분한 토대를 갖추고 있는바 현대화, 대중화 작업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바이다.

비중 있는 논문들이 본문에서 미처 다루어지지 못했거나 자료목록에서도 누락되었다면 전적으로 필자의 책임이다. 아울러 각각의 논의에서 밝힌 업적들을 충실하게 살피지 못한 점과 특정한 범주로 분류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에 대해서도 널리 양해를 구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1. 고대가요, 향가

- 권재선, 「『가락국기』의 거북노래 어석」, 『한민족어문학』 제42집, 한민족어문학회, 2003.
- 김문태, 「유리왕대 <도솔가>와 경덕왕대 <도솔가>의 거리」, 박노준 편, 『고전시가 엮어 읽기(상)』, 태학사, 2003.
- 김성기, 「<원가>의 연구」, 『고시가연구』 제12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03.
- 김영수, 「<황조가>와 이별주제 시조의 양상 고찰」, 박노준 편, 『고전시가 엮어 읽기(상)』, 태학사, 2003.
- 김종규, 「<도천수대비가> 그 양식적 표현의 巫佛禡合性」, 『고시가연구』 제11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03.
- 김진국, 『향가의 해석학적 연구』, 예림기획, 2003.
- 김창원, 「『삼국유사』 소재 향가의 역사적 위상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국제어문』 27, 국제어문학회, 2003.
- 나까지마 히로미, 「향가와 『만엽집』의 표기법 비교를 통한 향가 해독 연구」, 『어문연구』 제31권 제1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3.
- 류 열, 『향가연구』, 박이정, 2003.
- 박노준, 『옛사람 옛노래 향가와 속요』, 태학사, 2003.
- 박재민, 「<보현십원가> 難解句 5題」, 『구결연구』 10, 구결학회, 2003.
- 배한순, 「경덕왕대 향가연구」, 안동대 석사논문, 2003.
- 성기옥, 「<공무도하가>와 한국 서정시의 전통」, 박노준 편, 『고전시가 엮어 읽기(상)』, 태학사, 2003.
- 신재홍, 「<모죽지랑가>와 8행 향가의 양식적 특성」, 박노준 편, 『고전시가 엮어 읽기(상)』, 태학사, 2003.
- 양희철, 「향찰 ‘于萬(隱)’과 ‘于桴毛’의 해독」, 『배달말』 32, 배달말학회, 2003.
- _____, 「향찰 ‘執桴—’과 ‘火條’의 해독」, 『어문연구』 42, 어문연구학회, 2003.
- _____, 「향가의 구비시가 수용양상」, 박노준 편, 『고전시가 엮어 읽기(상)』, 태학사, 2003.
- 유옥례, 「헌화가의 연구」, 『고시가연구』 제12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03.
- 이건호, 「<안민가>의 창작동기와 미륵사상 연구」, 『고시가연구』 제11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03.
- 이도흠, 「향가 텍스트와 서사 맥락의 숨— 문제」, 『한국시가연구』 제13집, 한

- 국시가학회, 2003.
- _____, 「화엄의 패러다임으로 향가와 현대시 엮어 읽기」, 박노준 편, 『고전시가 엮어 읽기(상)』, 태학사, 2003.
- _____, 「향가 연구의 쟁점과 전망」, 인권환 외, 『고전문학연구의 쟁점적 과제와 전망(하)』, 월인, 2003.
- 이민홍, 「신라 악무에서 향가의 위상과 <도솔가>의 악장적 성격」, 박노준 편, 『고전시가 엮어 읽기(상)』, 태학사, 2003.
- 이승남, 「<처용가>의 시적 정서와 서사물의 구조」, 『한국어문학연구』 제40집, 어문연구학회, 2003.
- 이연숙, 「향가와 『만엽집』의 불교가 비교 연구」, 박노준 편, 『고전시가 엮어 읽기(상)』, 태학사, 2003.
- 정상균, 「<모죽지랑가> 연구」, 『고시가연구』 제11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03.
- 차재형, 「<구지가>의 전쟁서사시적 성격 연구」, 『한국문학논총』 제33집, 한국문학회, 2003.
- 최상민, 「월명사 <도솔가> 일고」, 『고시가연구』 제11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03.
- 최선경, 「제의문맥에서 향가의 주술성이 성립되는 조건에 관하여」, 『새국어교육』 65, 한국국어교육학회, 2003.

2. 고려가요, 악장

- 김귀석, 「<金城別曲> 연구」, 『고시가연구』 제11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03.
- 김기영, 「<쌍화점>의 내외 공간과 화자의 이중성 고찰」, 『어문연구』 43, 어문연구학회, 2003.
- 김명준, 「『악장가사』의 성립과 소재 작품의 전승 양상 연구」, 고려대 박사논문, 2003.
- 김석희, 「<독락팔곡>과 <전가팔곡>의 거리」, 박노준 편, 『고전시가 엮어 읽기(상)』, 태학사, 2003.
- 나정순, 「고려가요에 나타난 성과 사회적 성격」,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6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3.
- 박경주, 「전승방식과 음악성을 통해 본 고려시대 시가장르의 흐름」, 『한국시가연구』 제13집, 한국시가학회, 2003.
- _____, 「고려중기 지식층문화에 대한 대안문학으로서 경기체가·어부가의 성격 고찰」, 인권환 외, 『고전문학연구의 쟁점적 과제와 전망(하)』, 월인, 2003.
- 박기호, 「<구실등가>와 <용비어천가>의 비교 연구」, 『고전문학과 교육』 5,

- 청관고전문학회, 2003.
- 박재민, <정석가> 발생시기 再考, 『한국시가연구』 제14집, 한국시가학회, 2003.
- 양태순, 「<서경별곡>과 이별 민요의 이별의 양상과 정서」, 박노준 편, 『고전시가
가 읽어 읽기(상)』, 태학사, 2003.
- 엄국현, 「고려궁정잔치노래 <비두로기>의 작품분석과 장르적 성격」, 『한국문
학논총』 제35집, 한국문학회, 2003.
- 유경환, 「동동의 원형적 상징성」, 『새국어교육』 65, 한국국어교육학회, 2003.
- _____, 「정석가의 원형적 상징성」, 『새국어교육』 66, 한국국어교육학회,
2003.
- 윤성현, 「<이상곡>과 민요에 나타난 이별의 양상 비교」, 박노준 편, 『고전시가
가 읽어 읽기(상)』, 태학사, 2003.
- 이승남, 「<처용가>의 시적 정서와 서사물의 구조」, 『한국어문학연구』 제40집,
어문연구학회, 2003.
- 이형대, 「고려가요·사설시조·대중가요와 에로티즘의 표징」, 박노준 편, 『고전
시가 읽어 읽기(상)』, 태학사, 2003.
- 임주탁, 「<청산별곡>의 독법과 해석」, 『한국시가연구』 제13집, 한국시가학회,
2003.
- _____, 「<정석가>의 함의와 생성 문맥」, 『한국문학논총』 제35집, 한국문학
회, 2003.
- 정민, 「한시와 고려가요 4제」, 박노준 편, 『고전시가 읽어 읽기(상)』, 태학사,
2003.
- 정태성, 「고려속요에 나타난 여성화자의 의식연구」, 조선대 석사논문, 2003.
- 조규익, 「계층화의 명분과 기득권 수호 의지」, 『고전문학연구』 23, 한국고전문
학회, 2003.
- _____, 「조선조 악장의 통시적 의미」, 『국제어문』 27, 국제어문학회, 2003.
- _____, 「翼宗 악장 연구」, 『고전문학연구』 24, 한국고전문학회, 2003.
- _____, 「악장 읽어 읽기」, 박노준 편, 『고전시가 읽어 읽기(상)』, 태학사,
2003.
- _____, 「악장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송실어문』 제19집, 송실어문학회,
2003.
- 조기봉, 「고려시가연구」, 충남대 박사논문, 2003.
- 최미경, 「고려속요의 유절양식과 분린체의 관련양상 고찰」,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3.
- 허남춘, 「고려 처용가와 무가의 주술성 비교」, 박노준 편, 『고전시가 읽어 읽기
(상)』, 태학사, 2003.

홍인석, 「고려속요의 시적화자 연구」, 수원대 석사논문, 2003.

3. 시조

강재현, 「남파 김천택의 시조 인식과 시조사적 의의」, 『어문연구』 41, 어문연구학회, 2003.

강지향, 「남파시조의 공간 유형과 그 의미」, 경성대 석사논문, 2003.

고정희, 「사설시조의 희극적 특징 고찰」, 『한국문학논총』 제35집, 한국문학회, 2003.

_____, 「17세기 시조 연구의 쟁점과 그 방법론적 성격」, 『국문학연구』 제10호, 국문학회, 2003.

고재일, 「오륜가 연구」, 조선대 석사논문, 2003.

권순희, 「조선후기 시조창의 형성과 전개 방향」, 『한국시가연구』 제14집, 한국시가학회, 2003.

_____, 「농요로 엮여 있는 <농가구장>의 세계상과 표현 미학」, 박노준 편, 『고전시가 엮어 읽기(하)』, 태학사, 2003.

권정은, 「훈민시조의 창작기반과 다원적 진술양상」, 『국문학연구』 제9호, 국문학회, 2003.

김진숙, 「사설시조 담당층과 미의식의 변증」, 인권환 외, 『고전문학연구의 쟁점적 과제와 전망(하)』, 월인, 2003.

김병국, 「<무이도가>와 <고산구곡가>의 품격 연구」, 『어문연구』 제31권 제1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3.

김상진, 「기녀시조의 맥락과 황진이 시조의 팜프파탈」, 박노준 편, 『고전시가 엮어 읽기(하)』, 태학사, 2003.

김석배, 「승평계 연구」, 『문학과 언어』 제25집, 문학과언어학회, 2003.

김석희, 「19세기 초중반 가집의 노랫말 변용양상(2)」, 『고전문학연구』 24, 한국고전문학회, 2003.

_____, 「위백규 문학의 평전적 검토 시론」, 『고전문학과 교육』 6, 청관고전문학회, 2003.

김성기, 「정극인의 <불우현가>에 나타난 時調性 연구」, 『시조학논총』 19, 한국시조문학회, 2003.

김수경, 「시조에 나타난 병렬법의 시학」, 『한국시가연구』 제13집, 한국시가학회, 2003.

_____, 「고전시가와 현대시에 나타난 병렬의 방식」, 박노준 편, 『고전시가 엮어 읽기(하)』, 태학사, 2003.

김신중 역, 『역주 금옥총부』, 안민영 원저, 박이정, 2003.

- 김진옥, 「정철 시조의 문학적 특성 연구」, 『고시가연구』 제12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03.
- 김학성, 「시조의 텍스트 파생 양상과 그 의미」, 『고전문학연구』 23, 한국고전문학회, 2003.
- _____, 「평시조와 사설시조의 텍스트 연관성」, 박노준 편, 『고전시가 읽어 읽기(하)』, 태학사, 2003.
- 김혜숙, 「김수장 시조 문학 연구」, 조선대 석사논문, 2003.
- 김홍규, 「사설시조의 愛慾과 性的 모티프에 대한 재조명」, 『한국시가연구』 제13집, 한국시가학회, 2003.
- _____, 「사설시조의 속승(俗僧)—애욕의 모티프 고찰」, 박노준 편, 『고전시가 읽어 읽기(하)』, 태학사, 2003.
- 박규홍, 「시조의 사회적 기능 고찰」, 『시조학논총』 19, 한국시조문학회, 2003.
- 박길남, 「고산 윤선도 시조의 공간적 추이와 그 의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21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3.
- 박종석, 「육가계 시조 연구」, 고려대 석사논문, 2003.
- 박해남, 「시조에 나타난 정서의 표출 방식」, 박노준 편, 『고전시가 읽어 읽기(하)』, 태학사, 2003.
- 박혜림, 「월령체형 시조의 연구」, 순천향대 석사논문, 2003.
- 박희선, 「정훈 시조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논문, 2003.
- 송정란, 『한국 시조 시학의 탐색』, 문학아카데미, 2003.
- 성무경, 「19세기 초반, 가곡 향유의 한 단면」, 『시조학논총』 19, 한국시조문학회, 2003.
- _____, 「가곡 가집 『영언』의 문화적 도상」, 『고전문학연구』 23, 한국고전문학회, 2003.
- 신현우, 「<陶山雜詠>과 <陶山十二曲>에서의 ‘興」, 『국어국문학』 133, 국어국문학회, 2003.
- 신명영, 「수양의 시조, 유람의 단가」, 박노준 편, 『고전시가 읽어 읽기(하)』, 태학사, 2003.
- _____, 「진가시조인가, 자영농시가인가?」, 인권환 외, 『고전문학연구의 쟁점적 과제와 전망(하)』, 월인, 2003.
- 신은경, 「자이탐구의 旅程으로서의 <산중신곡>과 <어부사시사>: 공간의식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21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3.
- 안현수, 「한시와 시조의 비교 연구」, 경기대 석사논문, 2003.
- 양희찬, 「이현보 <어부가>에 담긴 두 현실에 대한 인식구조」, 『시조학논총』

19. 한국시조문학회, 2003.
- 여기현, 「어부가 엮어 읽기」, 박노준 편, 『고전시가 엮어 읽기(하)』, 태학사, 2003.
- 이경엽, 「어부가 · 표해록 · 어료요에 나타난 해양 인식 태도」, 『한국언어문학』 제50집, 한국언어문학회, 2003.
- 이동규, 「이세보 시조의 동물 상징성 연구」, 경희대 석사논문, 2003.
- 이명희, 「이세보 시조 연구」, 계명대 석사논문 2003.
- 이상원, 「18세기 가집 편찬과 『靑丘永言 精文研本』의 위상」, 『한국시가연구』 제14집, 한국시가학회, 2003.
- _____, 「조선후기 <고산구곡가> 수용양상과 그 의미」, 『고전문학연구』 24, 한국고전문학회, 2003.
- _____, 「<도통가>와 <황강구곡가> 창작의 정치적 배경」, 『한민족어문학』 제43집, 한민족어문학회, 2003.
- 이은경, 「김득연의 시조 연구」, 계명대 석사논문, 2003.
- 이정선, 「조선후기 한시와 사설시조의 정서적 친연성 고찰」, 박노준 편, 『고전시가 엮어 읽기(상)』, 태학사, 2003.
- 이정자, 『시조문학 연구론』, 국학자료원, 2003.
- 이형대, 「사설시조와 여성주의적 독법」, 조현설 외, 『고전문학과 여성주의적 시각』, 소명출판, 2003.
- 장명덕, 「윤고산 문학 연구」, 원광대 박사논문, 2003.
- 전계영, 「이정보 시조의 연구」, 충북대 석사논문, 2003.
- 전일환, 「고산 윤선도 국문시가의 수사미학」, 『고시가연구』 제11집, 한국고시가학회, 2003.
- 전재강, 「황윤석 시조의 교술적 성격과 작가 의식」, 『시조학논총』 19, 한국시조문학회, 2003.
- _____, 「훈민시조 작가와 작품의 역사적 성격」, 『어문학』 제79집, 한국어문학회, 2003.
- 정무룡, 「농암 이현보의 장·단 <어부가> 연구(I)」, 『한민족어문학』 제42집, 한민족어문학회, 2003.
- _____, 「농암 이현보의 장·단 <어부가> 연구(II)」, 『한민족어문학』 제43집, 한민족어문학회, 2003.
- 정민, 「<花庵九曲>의 작가 柳璞(1730~1787)과 『花庵隨錄』」, 『한국시가연구』 제14집, 한국시가학회, 2003.
- 정윤환, 「기녀시조 연구」, 경희대 석사논문, 2003.
- 정흥모, 「조선조 시조에 나타난 자연관의 변모 양상」, 인권환 외, 『고전문학연

- 구의 쟁점적 과제와 전망(하)』, 월인, 2003.
- 조세형, 「사설시조의 시학적 고찰」, 『국어교육』 112, 한국국어교육연구학회, 2003.
- , 「사설시조의 중층성과 욕망의 언어」,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7집,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3.
- 조애란, 「황진이 시가에 나타난 시어 연구」, 중앙대 석사논문, 2003.
- 조윤경, 「조운 시조의 현대성 연구」, 전남대 석사논문, 2003.
- 조은숙, 「사설시조에 나타난 현실인식의 표출양상 연구」, 조선대 석사논문, 2003.
- 조해숙, 「전승과 향유를 통해 본 <개암십이곡>의 성격과 의미」, 『국어국문학』 133, 국어국문학회, 2003.
- , 「17세기 시조 한역의 성격과 의미」, 『배달말』 33, 배달말학회, 2003.
- , 「사설시조의 담담층과 문학적 성격」, 『국문학연구』 제9호, 국문학회, 2003.
- 최규수, 「훈민형 시가에서 말하기 방식의 특징과 효 율리의 의미」, 박노준 편, 『고전시가 읽어 읽기(하)』, 태학사, 2003.
- 최징숙, 「기녀시조의 공간 의식 연구」, 경성대 석사논문, 2003.
- 최현재, 「교훈시조의 전통과 박인로의 <오륜가>」, 『한국시가연구』 제14집, 한국시가학회, 2003.
- , 「在地士族으로서 朴仁老의 삶과 <陋巷詞>」, 『국문학연구』 제9호, 국문학회, 2003.
- 한장훈, 「시조문화 정보시스템 개발의 가능성과 전망」, 『시조학논총』 19, 한국시조문학회, 2003.

4. 가사

- 강경호, 「서민가사의 실체성 연구」, 성균관대 석사논문, 2003.
- 강진섭, 「小岳樓 李柔의 <子規三疊>과 <四郡別曲>에 대하여」, 『고시가연구』 제12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03.
- 고순희, 「<노처녀가> 연구」, 『한국시가연구』 제14집, 한국시가학회, 2003.
- 고정희, 「<된동어미화전가>의 미적 특징과 아이러니」, 『국어교육』 111, 한국국어교육연구학회, 2003.
- 권정은, 「누정가사의 공간인식과 미적 체험」, 『한국시가연구』 제13집, 한국시가학회, 2003.
- 김대행, 「<된동어미화전가>와 팔자의 원형」, 박노준 편, 『고전시가 읽어 읽기(하)』, 태학사, 2003.

- 김석희, 「조선후기 향촌사족층 여성의 삶과 시집살이 서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6집,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3.
- 김진숙, 「여성으로 말하기, 그 안과 밖」, 박노준 편, 『고전시가 엮어 읽기(하)』, 태학사, 2003.
- 김봉선, 「신재 조우인 시가연구」, 고려대 석사논문, 2003.
- 김진옥, 「屈原이 정철 문학에 끼친 영향 연구」, 『고시가연구』 제11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03.
- 김찬재, 『송강의 문학과 정치』, 대한나래출판사, 2003.
- 김팔남, 「福川 李太守作 <望美人歌>의 主題形象化 考察」, 『어문연구』 43, 어문연구학회, 2003.
- 길진숙, 「상사가류 가사에 나타난 사랑의 수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7집,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3.
- 류연석, 「해남윤씨종가소장 규방가사 연구」, 『고시가연구』 제11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03.
- _____, 『가사문학의 연구』, 국학자료원, 2003.
- 박노준, 「〈해유가〉와 〈서유견문록〉 견주어 보기」, 박노준 편, 『고전시가 엮어 읽기(하)』, 태학사, 2003.
- 박애경, 「장편가사 <이정양가록>에 나타난 사족 여성의 삶과 내면의식」,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6집,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3.
- _____, 「'록자류' 가사의 존재 양상과 그 의미」, 『한국문학연구』 26집,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2003.
- _____, 「조선후기 장편가사의 생애담적 성격에 관하여」, 『열상고전연구』 18집, 열상고전연구회, 2003.
- 박연호, 「조선후기 가사의 장르적 특성」, 『한국시가연구』 제13집, 한국시가학회, 2003.
- _____, 『가사문학 장르론』, 도서출판 다운샘, 2003.
- _____, 「가사의 장르적 성격과 미적 구현 방식」, 인권환 외, 『고전문학연구의 쟁점적 과제와 전망(하)』, 월인, 2003.
- 박요순, 「具康의 <除夕嘆> 攷」, 『한남어문학』 제27집, 한남대 국문과, 2003.
- 박준규, 「광주·전남지역의 누정조사와 정철의 누정제영」, 『어문론총』 제38호, 경북어문학회, 2003.
- 서영숙, 「가사 <신가전>에 나타난 여성의 현실과 인식」,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7집,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3.
- _____, 「조선후기 가사의 다양성」, 『어문연구』 41, 어문연구학회, 2003.
- 성무경, 「〈상사별곡〉의 사설짜임과 애정형상의 보편성」, 박노준 편, 『고전시가

- 읽어읽기』 (하), 태학사, 2003.
- 신경숙, 「규방가사, 그 탄식 시편을 읽는 방법」, 인권환 외, 『고전문학연구의 쟁점적 과제와 전망(하)』, 월인, 2003.
- 안혜진, 「〈규루사〉 연구」, 『이화어문논집』 제21집, 이화어문학회, 2003.
- 육민수, 「조선후기 교훈가사의 담론 특성 연구」, 성균관대 박사논문, 2003.
- 윤덕진, 「19세기 가사집을 통해 본 가사 향유의 실상」, 『한국시가연구』 제13집, 한국시가학회, 2003.
- 윤영옥, 「〈성산별곡〉의 해석」, 『한민족어문학』 제42집, 한민족어문학회, 2003.
- 이경엽, 「어부가·표해록·어로요에 나타난 해양 인식 태도」, 『한국언어문학』 제50집, 한국언어문학회, 2003.
- 이은형, 「가사와 사부의 비교를 통한 가사의 특성 연구」, 공주대 석사논문, 2003.
- 이형대, 「계몽가사의 시대·양식·미학에 관한 회고적 성찰」, 인권환 외, 『고전문학연구의 쟁점적 과제와 전망(하)』, 월인, 2003.
- 전일환, 「〈사미인곡〉과 〈만분가〉의 관련성」, 박노준 편, 『고전시가 읽어 읽기(하)』, 태학사, 2003.
- 정길자, 「규방가사의 사적 전개와 여성 의식의 변모」, 숙명여대 박사논문, 2003.
- 정영문, 「신미민란의 문학적 형상화 연구—정주가를 중심으로—」, 『송실어문』 제19집, 송실어문학회, 2003.
- 정인숙, 「남성적 여성화자 시가에 나타난 목소리의 의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21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3.
- 정혜란, 「침괘의 가사문학연구」, 전남대 석사논문, 2003.
- 조선영, 「사대부가사의 표현미학」, 『동양고전연구』 제19집, 동양고전학회, 2003.
- 조평환, 「신발굴 동학가사 〈海月神師讚歌〉 연구」, 『어문연구』 제31권 제3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3.
- 최상은, 「유배가사 작품구조의 전통과 변모」, 『새국어교육』 65, 한국국어교육학회, 2003.
- 함복희, 「〈덴동어미화전가〉의 서술특성과 주제적 의미」, 『어문연구』 제31권 제1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3.
5. 잡가, 시가교육, 기타 일반론
- 고미숙, 「잡가와 계몽가사」, 박노준 편, 『고전시가 읽어 읽기(하)』, 태학사, 2003.
- 고영화, 「감정이입의 표현교육론적 의의 연구」, 『국어국문학』 134, 국어국문학

- 회, 2003.
- 권오경, 『(고악보소재)시가문학연구』, 민속원, 2003.
- 김경옥, 「고전시가 교육의 방향과 방법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석사논문, 2003.
- 김석희, 『조선후기 시가연구』, 월인, 2003.
- _____, 「조선후기 향촌사대부 시가와 취향의 문제」, 인권환 외, 『고전문학연구의 쟁점적 과제와 전망(하)』, 월인, 2003.
- 김외순, 「경기잡가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 석사논문, 2003.
- 김윤정, 「고전시가 교육 방법 연구」, 숙명여대 석사논문, 2003.
- 김인환, 「고전시가와 현대시의 통합과 확산」, 박노준 편, 『고전시가 엮어 읽기(하)』, 태학사, 2003.
- 김재숙, 「시조교육연구」, 국민대 석사논문, 2003.
- 김정주, 『시가문학연구』, 조선대 출판부, 2003.
- 류해춘, 「한국 시조문학의 존립기반과 그 본질에 관한 시고」, 『시조학논총』 19, 한국시조문학회, 2003.
- 박기호, 「고려 조선조 가악 가사의 연속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박사논문, 2003.
- _____, 『고려·조선조 시가문학사』, 국학자료원, 2003.
- 박노준 편, 『고전시가 엮어 읽기(상)』, 태학사, 2003.
- 박애경, 「잡가의 개념과 범주의 문제」, 『한국시가연구』 제13집, 한국시가학회, 2003.
- _____, 「19세기 도시유흥에 나타난 도시인의 삶과 욕망」, 『국어어문』 27, 국어어문학회, 2003.
- 박인희, 「국어교육 대상으로서의 고전시가 연구」, 국민대 석사논문, 2003.
- 박현중, 「고전시가에 내재된 민요의 형식원리 연구」, 건국대 석사논문, 2003.
- 성무경, 「조선후기 秀才와 歌曲의 관계」, 『한국시가연구』 제14집, 한국시가학회, 2003.
- _____, 「19세기 국문시가의 구도와 해석의 지평」, 인권환 외, 『고전문학연구의 쟁점적 과제와 전망(하)』, 월인, 2003.
- 성호경, 「한국 고전시가에 끼친 중국시가의 영향에 대한 연구」, 『한국문화』 32,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2003.
- 신익철, 「고전시가와 현대시에 나타난 낙화(落花)의 형상」, 박노준 편, 『고전시가 엮어 읽기(상)』, 태학사, 2003.
- 안대회, 「나비, 사랑의 화신」, 박노준 편, 『고전시가 엮어 읽기(상)』, 태학사, 2003.
- 염은열, 「기행가사 감상의 경험적 성격과 의의」, 『고전문학과 교육』 6, 청관고

- 전문학회, 2003.
- 오은경, 『시가가본원리』, 신성출판사, 2003.
- 윤광봉, 『고전시가와 예술』, 경인문화사, 2003.
- 이명심, 「가사문학의 특성과 학습활동 방향 모색」, 2003.
- 이미영, 「고려속요의 정서와 교육」, 숙명여대 석사논문, 2003.
- 이영태, 『한국 고시가의 새로운 인식』, 경인문화사, 2003.
- 이종묵, 「한시 속에 삽입된 옛노래」, 박노준 편, 『고전시가 읽어 읽기(상)』, 태학사, 2003.
- 이찬욱, 「시조 낭송의 콘텐츠화 연구」, 『시조학논총』 19, 한국시조문학회, 2003.
- 이형태, 「휘모리잡가의 사설 짜임과 웃음 창출 방식」, 『한국시가연구』 제13집, 한국시가학회, 2003.
- 이혜경, 「휘모리잡가의 사설 형성원리와 향유양상」, 성균관대 석사논문, 2003.
- 인권환 외, 『고전문학연구의 쟁점적 과제와 전망(상, 하)』, 월인, 2003.
- 임기중, 『한국고전문학과 세계인식』, 역락, 2003.
- 임주탁, 「한국 근대시의 형성 과정 연구」, 『한국문화』 32,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2003.
- 장유정, 「갈래를 통해 본 20세기 초 한국 가요의 전개 양상」, 『국문학연구』 제10호, 국문학회, 2003.
- 장재단, 「〈청산별곡〉의 작품 특성과 학습지도방안연구」, 성균관대 석사논문, 2003.
- 정우봉, 「달거리 노래의 변주」, 박노준 편, 『고전시가 읽어 읽기(상)』, 태학사, 2003.
- 정경순, 「가사문학의 지도 방안 연구」, 단국대 석사논문, 2003.
- 정종진, 「주제적 양식의 고시가 검토」, 『성심어문논집』 제25집, 성심어문학회, 2003.
- 조희경, 「〈도산십이곡〉에 대한 교육 담론 속의 독해」, 『고전문학과 교육』 5, 정관고전문학회, 2003.
- 최동안, 「잡가의 형식적 특성」, 『성심어문논집』 제25집, 성심어문학회, 2003.
- , 「잡가연구」, 가톨릭대 박사논문, 2003.
- 최미정, 「직업을 가진 조선시대 여성에 대한 연구방법 고찰」,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6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3.
- 최성아, 「창의성 신장을 위한 고전시가 교수·학습 방법 연구」, 서강대 석사논문, 2003.
- 최재남, 『서정시가의 인식과 미학』, 보고사, 2003.

- _____, 「국문시가와 한시의 존재 기반과 미의식의 층위」, 인권환 외, 『고전문학연구의 쟁점적 과제와 전망(하)』, 월인, 2003.
- 최진원, 『고전시가의 미학』, 월인, 2003.
- 최혜진, 『한국고전시가의 이념과 지향』, 월인, 2003.
- 추미영, 「시조문학 지도방안 연구」, 경희대 석사논문, 2003.
- 한국고전여성문학회 편, 『고전문학과 여성화자, 그 글쓰기의 전략』, 월인, 2003.
- 홍명숙, 「잡가의 학습방법 연구」, 경희대 석사논문, 2003.